

“새단장 유치동물원 체험교실 9월에 만나요”

8월 생태교실 2회 모두 매진 해설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중·고교생 무료 직업탐방도

동물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광주유치공원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다. 동물을 가까이서 보며 동물을 사육하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등 유치공원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다. 참가 대상도 초·중·고교생으로 나뉘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유치공원관리사무소는 17일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2회 운영한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야생동물 생태교실’은 지난달 유치공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단 이틀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3명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61명이 참가하며 다시 한번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 8월과 10월 1회당 20명씩 참가해 유치동물원 이야기, 교육용 블루우건인 ‘혹삭’ 알아보기, 동물원 한바퀴 체험, 나만의 동물원 그리기 등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별별대회가 물러난 9월부터는 유치공원만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동물생태해설사와 동물원 한바퀴 체험”,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동물원 직업탐방교실’로 새단장한다.

“동물원 직업탐방교실”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4회가 운영된다. 동물원의 다양한 기능과 직업군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다양한 학교의 참여 열기가 높아 전년에 비해 2배 확대됐는데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유치공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체험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유치공원 홈페이지(<http://uchipark.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남 유치공원관리소장은 “여름방학 야생동물 생태교실은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동물원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다”며 “유치공원에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유치공원이 8월 진행한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야생동물생태교실’의 나만의 동물원 그리기 프로그램. (유치공원 제공)

‘이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기 인수식

내일 5·18민주광장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오는 19일 오후 5시18분부터 대회기 인수 환영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광주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달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차기 개최도시 자격으로 대회기를 공식 인수해 온 것을 기념하고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유정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조직위원, 자문위원, 각급 기관 단체장,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도시 비전 선포와 성공기원 퍼포먼스, 인디밴드 공연 등이 펼쳐진다.

대회기 입장 때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엠블럼기와 마스코트인 ‘수리’, ‘달이’가 첫 선을 보인다.

유정현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기 환영행사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높아진 광주의 위상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성공 개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제부터 광주의 시간이다. 세계수영대회의 역사를 새로 쓰는 멋진 대회로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31일간 208개국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영·다이빙·싱크로나이즈드 수영·수구·하이드로워터·오픈워터 수영 등 6개 종목이 남부대, 진월테니스장, 염주체육관 등에서 개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저비용 고효율’ 광주U대회 정부 포상

인수식서 훈·포장 전수

‘저비용 고효율’로 치른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기 정부 포상을 받는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국제수영연맹(FINA) 대회기 인수식 및 부훈·포장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포상은 U대회조직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 등 10명이 훈장을, 한양대 임덕호 교수 등 19명이 포장을, 전남대 안병규 교수 등 50명이 대통령표창을, 광주지방경찰청 성기하 경감 등 71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150명이 받는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전남대 윤택립 교수(녹조근정훈장), 경찰청 김진천

경정(녹조근정훈장), 육군제31보병사단 류제연 중령(보국포장), 광주랜드 불협화 명기연 전무이사(대통령표창), 광주국제유호친선협회 김예숙 수석 부회장(국무총리표창), 광주시자원봉사센터(국무총리표창·단체) 등 6명이 대표로 수상한다.

유정현 시장은 “광주하계U대회는 대시민 보고대회에서 광주하계U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훈·포장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U대회는 지난 2015년 7월 3일부터 7월14일까지 12일간 광주, 전·남북, 충주 일원에서 총 140개국 1만70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을 포함한 21개 종목을 치르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및 국내외 언론들로부터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토부 장관 만난 윤 시장,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국비 요청

지역 현안 5건 건의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윤정현 광주시장이 17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전선 광주~순천간 전철화 사업 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지역 주요 현안은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광주송정역사 증축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을 상향 등 5건이다.

윤 시장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광주~순천 구간이 전국 4대 간선철도망 중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1930년대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유일한 철도임을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내년도 기본계획용역 추진을 건의했다.

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관련, 한국철도공사와 진행 중인 사업부지 매입 협의가 조기가 마무리 되도록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윤 시장은 또 “KTX 호남선 개통 이후 주말 2만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광주송정역의 증축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호남고속



윤정현(오른쪽) 광주시장이 17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전선 광주~순천간 전철화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철도 2단계 사업에 포함해 조기에 증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윤 시장은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호남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면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광주송정역 환승센터 사업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면서 “경전선 사업은 영호남간 교통편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환경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 광주보건연, 검사 실무교육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으로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21일부터 30일까지 총 5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은 주기적으로 측정분석 능력과 정도관리 사항을 평가받고 있는데,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은 영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간기관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민간기관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민간검사기관 11곳에서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5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장비 운영방법, 정도관리 방법,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등에 대한 강의와 대기, 수질, 실내공기질 등 각 분야 검사 실무교육을 한다.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은 “민간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능력과 정도관리 시스템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지진 담당자들, 오늘 초동대응 훈련

광주시는 18일 자치구 지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규모 6.0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가정한 ‘광역별 지진 발생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및 상황대처 훈련’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권역별 훈련상황을 제공해 지자체별 초동대응과 상황대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뉘 실시한다. 훈련은 상황전파매신저를 통한 ‘지진 발생 통보→상황별 임무역할에 따른 초

동대응→지자체별 피해확인 및 대처상황’에 대한 보고체계점검 순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강진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은 지진발생 시 임무와 역할을 숙지해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대외 보고체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실제 지진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진 대비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